신앙 성장 시리즈 32

확신을 가지고 하는 기도

Praying With Confidence

한국오늘의양식사

신앙 성장 시리즈 32

확신을 가지고 하는 기도

Praying With Confidence

ⓒ RBC Ministries

인　　쇄 : 2009년 6월 26일
발　　행 : 2009년 6월 28일
감　　수 : 김상복
번　　역 : 강희숙
편집·교정 : 신영균
발 행 인 : 김상복
발 행 처 : 한국 오늘의 양식사
(031)780-9565~8
인 쇄 처 : 소망사
(02)392-4232

차례

발간사 / 4

기도의 문제점 …… 7

기본으로 돌아가자 …… 14

중보자를 통하여 하나님께 접근하라 / 14

불만을 솔직하게 털어 놓아라/ 20

말하기보다 대화하라 / 36

하나님의 생각에 맡겨라 / 42

응답을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과 즐겁게 교제하라 / 50

성경을 통해서 본 기도 …… 55

지금부터 당신이 해야 할 기도 …… 61

표지사진 : 신상균의 "허브농원에서"

발간사

자신감을 갖고 기도하라

인생에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기도를 별로 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문제에 직면하면 실망하고 분노하고 원망을 합니다. 어려움이 클 때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가? 기도를 해도 하나님으로부터 전혀 가타부타 반응이 없을 때면 하나님이 우리를 우주속에 그냥 내버린 것 같은 극심한 공허와 절망을 느끼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확신을 갖고 기도할 수 있을까? 대답이 없는 것 같을 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할 수 있고 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도응답을 체험해야 합니다. 이 책자를 자세히 읽어보시면 기도에 대한 자신감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이신 것을 알고 느끼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가 재미가 날 것입니다. 쉬지말고 기도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따라 기도의 기쁨과 감사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2009년 6월
한국오늘의양식사
발행인 김 상 복 목사

기도하며 실망을 극복하자

실망이 크면 기도를 멈추게 됩니다. 당신이 믿고 있던 사람이 당신의 삶을 망쳐버려 화가 나고 비참해지면 기도하기가 어렵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당신을 낙심시킨다고 느껴질 때는 기도하기가 더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을 잘 이해하십니다. 그리고 확신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가도록 우리를 위해 길을 예비해 주십니다. 이 소책자를 통해 저자인 데이비드 에그너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잃었고 자신의 능력에 대한 확신을 잃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마틴 알 디 한 2세

기도의 문제점

기도에 대해 공부하려고 모여 내 앞에 앉아 있는 성인 미혼자 그룹에게 "기도를 시작할 때 나는 _____."이라는 문장으로 시작되는 종이를 나누어주었습니다. 사람들이 빈칸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라면 그 빈칸을 어떻게 채우겠습니까? 이 글을 읽기 전에 당신도 그렇게 따라 해보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기도를 시작할 때 나는 _____.

그룹원들이 써낸 것을 정리했더니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나타났습니다.

■ “나는 기도를 충분히 하지 않습니다.”

■ “나는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모릅니다.”

■ “나는 기도가 정말로 효험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보통 이런 답변들을 받습니다. 기도란 가벼운 마음으로 하나님과 대화하러 오고가는 것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몇 몇 사람들도 있는 반면, 기도란 가끔은 승리하지만 대체로 패배하는 싸움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기도가 항상 쉽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에 일리는 있습니다만 기도는 하나님께 단지 감정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기도에 대한 더 정확한 이해입니다. 기도는 때로는 약하고 작은 신앙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기도는 영적전쟁의 무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무지, 부주의 그리고 무감각함 때문에 자주 왜곡되고 단절되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반성하도록 해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기도는 때로는 실망감으로 바뀌기도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확신의 표현입니다.

초신자일 때 우리는 큰 기대를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깊은 곳에 희망을 주시고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행복을 얻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경험을 할 것이라고 가정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으로 인하여 우리는 어떤 문제도 딛고 일어설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 즈음에 이르면 무엇인가 중요한 것들을 달라고 하나님께 부탁하지만 얻지 못하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병을 앓는 친구에게 치유되기를 기도하고 있으니 안심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회복되지 않습니다. 가족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어떤 문제를 놓고 가족들 앞에서 해결책을 간구합니다만 여러 달이 지나도록 기다리고 또 기다리다가 하나님이 우리의 간구를 묵살하는 것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영혼을 회복시켜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에 대해 냉담합니다.

그러다 보면 서서히 실망하는 마음이 생기고 기도에 대한 열정을 잃어버리게 되면서 결국 우리는 식사 기도만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또 다시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것을 경험하기 싫어서 우리가 진정으로 걱정하는 일들을 하나님께 가져가지 않고 지내다가 드디어 하나님과의 대화를 그만 두게 됩니다.

하나님과 당신이 기도를 통해 맺고 있는 관계를 잠

간 생각해 봅시다. 만약 당신이 기도 하면서 성장하는 것을 멈췄다면 그것은 솔직히 말해서 실망 때문입니까?

- **하나님께 실망함:** "나는 하나님께서 내 딸을 고쳐주시리라고 믿으며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딸은 암이랑 싸우려는 의지를 상실했습니다. 나는 상처를 받았고 혼란에 빠졌습니다."
- **다른 사람에게 실망함:** "내 인생을 망친 사람에 대해 너무나 화가 날 때 기도하기가 힘듭니다."
- **자신에게 실망함:** "나는 기도하고 싶습니다. 기도하게 되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나는 특별한 목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나는 기도를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깨어진 인간관계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믿음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선 우리의 문제를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난날의 실망을 딛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다시 얻어야 합니다. 이 소책자를 통해 지금부터 그 신뢰를 회복하는 것을 돕고자 합니다.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나는 삶이 바뀌거나 뒤틀리면서 겪는 실망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좀 압니다. 간혹 하나님께서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삶 속에 허락하신 일들이 가장 곤혹스럽습니다. 그런 일 중 하나가 나의 사랑하는 손자의 건강에 관련된 것입니다. 내 손자 나단은 면역 결핍증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아이의 그 조그만 몸에는 병과 싸우는 기능이 없었습니다. 태어나서 몇 년째 계속해서 상기도 감염증을 앓고 있는 그 아이를 위해 우리는 그저 지켜보는 것 외에는 아무런 일도 해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거의 병원에서 살다시피 했습니다.

가족인 우리들은 두려웠습니다. 우리가 가슴 저리게 사랑하는 이 아이를 위한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데도 우리가 계속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을까요?

의사들은 이런 아이들의 60% 정도가 세살이 되면 면역체계가 형성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소식이 우리에게 희망을 갖게 해주었지만 한편으로는 40%는 면역체계가 생성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하게 해주었습

니다. 나는 무방비상태의 어린 아이를 보면서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처음에는 나단의 상태가 "만약 어떻게 된다면" 하면서 기도에 열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내 기도의 초점이 바뀌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내가 느끼던 고통에 빠져들지 않았습니다. 내 기도의 단어 수가 줄어드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나는 종종 침묵 속에서 나단을 위해 씨름했습니다. 마침내 나는 다만 "하나님, 최선의 것을 허락하옵소서.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손자가 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나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라는 기도만 했습니다.

세살이 되면서 나단은 감염 횟수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비로운 하나님께서는 나단을 면역체계 결핍을 극복하는 60%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는 상황을 지나면서 기도훈련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그래." 라는 응답에 감사했고 때로는 "안 된다." 라는 응답에서 지혜를 보았습니다. 때로는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는 과정에서 하나님과

즐거워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께 대한 그 어떤 요구도 결코 온당치 않은 것 같았습니다." - 프랜시스 쉐퍼

그럼에도 여전히 상황이 주는 실망 속으로 빠져드는 나 자신을 발견합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을 엘리야처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간절히 원하는 자신을 보게 됩니다(약 5:16-18). 어쨌든 내가 그 때 배운 것은 기도에 대한 참된 확신은 나의 욕망을 하나님께 투사하는 것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신에 나는 아주 간단하면서도 심오한 기도의 원리를 배우고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기도는 웅변적 능력이나 영적인 통찰력에 의존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원리는 하나님의 기도학교에서 배우는 것처럼 아주 쉽습니다.

기본으로 돌아가자

A Approach God Through A Mediator
중보자를 통해 하나님께 접근하라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중보)은 하나님께서 생각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을 믿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중재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사이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한 분을 보내셨는데 그분은 우리를 이해할 수 있고 우리의 상황에 동정적이며 호의적이며 동시에 하늘나라의 이익을 대표합니다.

이 중보자는 우리와 하나가 되고 우리의 문제에 동

참하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막 15:34) 이렇게 소리 지르며 마지막을 맞았습니다. 그러나 3일 후 말로 표현 할 수 없는 순간에 중보자가 승리했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우리의 중보자는 위대한 희생으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단절시켰던 장애물을 걷어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욕망과 다루기 어려운 자만심에 눈이 어둡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후회로 가득 찬 자신을 발견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 혼란스러워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결코 두 번 다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지 않는다거나 우리의 문제에 상관하지 않는다거나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우리가 죽도록 내버려둔다고 하는 논쟁은 더 이상 설득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이야기하고 싶어 하신다는 확신 없이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습니다.

이런 중재자의 역할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기는 하시는지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우

리가 처한 지금 상황으로 미루어 하나님께서 상관하지 않았다고 추측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기도로 주께 나아갈 때마다 중보자의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에 대한 기억이 우리 안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이제는 죄로 더러워진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갈 필요가 없다는 사실에 우리는 용기를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름으로 그 분 앞에 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조심스럽게 골라낸 말로 하나님께 가지 않습니다. 자신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 값을 치르신 그 분의 공로로 하나님께 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분을 위하여 하나님께 갑니다.

과거의 희생에 대한 확신

이 접근 방법은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마음속에 항상 있습니다. 하나님께 접근하는 그런 구도는 우리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훨씬 전에 이스라엘의 성막과 성전 예배에서 그 사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수백년 동안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피 흘리는 제물을 바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분

명히 하셨습니다. 그 희생 제물이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 당할 격렬한 폭력적인 고통과 죽음을 시사했다는 것은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것으로 알려진 성전 내부 바로 그 장소에 향로가 있습니다. 타오르는 향 냄새와 연기가 올라가는 모양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를 상징했습니다. 여기에 깊은 뜻이 있는 것은 희생제단에서 가져온 석탄으로 이 향에 불을 붙였다는 것입니다(출 30:7-10). 하나님이 생각하시기에 희생제사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인 기도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희생제사와 기도의 연결은 우리의 중보자가 우리를 위해 보장해 놓은 것입니다. 중보자는 하나님께서 수용할 수 있는 제물로 자신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중보자는 그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으로 들어가도록 용기를 줍니다. 이런 확신을 바탕으로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썼습니다:

>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

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히 4:14-16).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이 성경 구절에서는 보좌가 있는 방에 있는 것과 같다고 표현합니다. 유럽과 중동에서는 왕의 보좌가 있는 방을 정교하고 화려하게 장식하였고 그 안은 시중드는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보통사람들은 위축되었고 겁을 먹었습니다.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의 바로 그 느낌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중보하심과 이해하심으로 인해 우리는 초대받지 않은 침입자 같은 느낌을 받지 않고 확신을 갖고 하나님의 전에 나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과 그분의 공로로 온 것인바 하나님께 언제라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이 어떻든,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 관계없이, 언제, 어떤 조건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왕의 도장이 찍힌 초청장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은혜의 보좌"이기 때문입니다.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받는 호의입니다. 은혜는 공로 없이 받는 도움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중보자가 우리를 위해 보장해주신 도움입니다.

현재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

앞에서 언급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중보자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우리는 "은혜의 보좌"에 갈 수 있습니다. 그 분이 우리를 위해 계속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그 분은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십니다(롬 8:34). 자신이 치른 희생의 공로로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이십니다. 그 분은 보좌가 있는 방에서 하나님과 함께 우리를 위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도 요한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씀은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요일 2:1-2).

우리가 왜 망설여야 합니까? 자기희생을 바탕으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분이 지금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중보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기도하기를 주저하거나 기도의 가치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Be honest about your complaints
불만을 솔직하게 털어 놓아라

하나님은 정직한 대화를 좋아합니다. 사실주의는 그 분의 속마음의 특성입니다. 그분은 어둠과 기만을 증오합니다. 어둠은 그 분의 원수의 영역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에 대한 확신의 두 번째 핵심은 우리의 마음에 있는 그대로 솔직해지는 것입니다. 그 분은 우리의 불평과 어리석음과 두려움과 실패를 다루실 수 있습니다. 그 분은 우리의 분노와 착각과 어린아이 같은 부탁에 놀라지도 않고 위협을 느끼지도 않으십니다.

우리의 영혼에 실제로 일어난 일들을 회개하지 않으면서 반복되는 아첨하는 거짓말, 형식적인 찬양, 위선적인 말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두려움 속에서 숨기는 습관, 약아 빠진 속임수, 형식적인 언어를 내버리고 그 빈자리에 진리로 기초를 놓아 기도의 근거로 삼아야 합니다.

위선적인 거짓말로 가득 찬 기도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런 기도들은 우리 가슴속의 참된 영혼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

의 보좌가 있는 방에 들어가서 확신 속에서 기도를 시작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할 때 솔직해 지는 법을 배워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자신을 평가해보고 죄를 고백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그분에 대해서, 우리자신에 대해서, 사람들과 우리들의 문제들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우리의 좌절, 욕망, 고통스러운 기억들에 대해 솔직히 어떻게 느끼는지를 하나님께 아뢰어야 합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우리의 열망에 대해 솔직해야 하고 그 열망을 우리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그 사실도 역시 분명하게 밝히고 하나님께 우리의 반발심과 어리석음을 극복하게 도와달라고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이해하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

우리가 자신에 대한 진실을 알기 원할 때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볼 수 있게 합니다. 시편기자는 "여호

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시 139:1) 라고 썼습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네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뭇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사상을 아시나니 네가 저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버리면 저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대상 28:9)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을 성찰하는 기도와 성경말씀이 결합될 때 우리는 우리 내부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감정과 진짜 동기를 보여줍니다. 성경은 오래된 불평과 비밀스런 증오와 쓰라린 분노가 숨어있는 우리의 마음속 구석구석과 틈 사이사이로 우리를 데리고 갑니다. 솔직한 기도를 통해 이런 것들을 표면으로 떠오르게 할 수 있고 그것이 정말로 무엇인지 바로 보고 그것들을 해결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형식적인 말로 하는 기도를 버리고 진리로 기초를 놓아야 합니다."

여기에 대해 우리는 확신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중심을 보여 달라고 구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십니다. 곧 바로 해주시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분의 방법으로 주님은 부정과 억압의 휘장을 걷어내고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렇게 하는 동안 주님은 우리를 잘 돌보아주십니다.

- 그분은 마음속에 있는 오래된 상처를 우리를 위해 치유하고 잊게 할 수 있습니다.
- 그분은 우리가 지키지 않았던 약속이나 갚지 않은 빚을 생각나게 할 수 있습니다.
- 그분은 우리가 몇 년 전에 다른 사람들에게 준 상처를 깨닫게 하여 그것을 시정하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 그분은 우리에게 지시하여 오해를 바로잡거나 다른 사람을 용서하게 합니다.

가슴으로 얻는 지식은 경이로우며 자유케하는 선물입니다. 그리고 이 지식은 기도 중에 하나님께 솔직해질 때 오는 것입니다.

자신에 대한 성찰 역시 우리 삶속에서 적극적인 축

복을 열어 보여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고 항상 우리를 위해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선하심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은혜로 채워주시고 역경을 통해 성장하게 하시고 어려운 환경을 통해 참고 견디게 하시고 유혹을 피할 길을 주시고 그분의 평화를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삶의 세부적인 것에 매이거나 의무감으로 괴로움을 당할 때 우리는 때때로 이것을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정직한 마음을 기꺼이 용서해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

9회 말 동점에 상대 팀은 2사 만루였습니다. 어려운 땅 볼이 신인 유격수의 약간 오른쪽으로 날아갔습니다. 공은 유격수의 글러브에서 튀어 나갔습니다. 상대방은 1점이 나고 우리는 패했습니다. 그 유격수는 이전에 그런 수비 플레이를 천 번은 해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볼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이 야구선수는 아마도 우리들 대부분처럼 반응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볼이 돌에 부딪쳤다거나, 불규

칙하게 튀었다고 변명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햇빛이나 젖은 잔디 탓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경기가 끝나고 그는 "내가 실수했습니다." "내 책임입니다." "내 잘못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런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면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여야 하고, 죄를 고백하면서 기꺼이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합니다.

다윗 왕과 나단의 이야기를 기억합니까? 권력을 가지면서 부도덕해진 다윗은 전쟁터를 부하 장군에게 맡기고 궁전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는 목욕하는 밧세바를 보고 그녀를 궁궐로 불러들여 동침을 했고 자기 죄를 은폐하기 위해 그녀의 남편인 장군을 죽였습니다. 선지자 나단이 다윗 왕에게 맞서서 "당신이 그 사람이라."(삼하 12:7)라고 부정할 수 없는 정죄의 말을 할 때까지는 잘 피해가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마침내 스스로 드리운 어둠 속에서 여러 날 아마도 여러 달을 지난 후에 다윗 왕은 자신의 죄를 인정합니다. 그의 감동적인 회개의 기도는 시편 51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나

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시 51:3-4). 다윗 왕은 그가 전에 누렸던 기쁨을 회복하여 주십사고 간청했습니다. 그의 기도는 하나님의 용서하심으로 응답을 받았습니다. 오늘날에는 성경과 성령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나단의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마음이 단단하게 굳어있고 양심이 무감각해진 냉담한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변호사들은 소송에서 노련한 솜씨로 누가 보아도 성실하게 변론을 합니다. 심지어는 피고인의 유죄를 알면서도 그렇게 합니다. 피고인들은 죄의식이나 뉘우치는 기색이 조금도 없는 가운데 잔혹한 범죄에 대한 형벌을 선고 받습니다. 우리는 부인하거나, 합리화하거나, 비난할 다른 사람들을 찾는 데 선수들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들은 철가면을 쓴 것 같은 냉정함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항상 하나님이 받으시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시 51:17)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 마음을 구하십시오.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10절)라고 간청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높이 사실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눅 18:13)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지금 곧 똑바로 서려면 당신의 잘못에 대해 진심으로 이야기해야 합니다.

우리의 불평을 처리하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

우리의 인간관계는 불화, 투쟁, 충돌 등으로 혼란스럽습니다. 그런 혼란스러운 일들이 없다 해도, 누구인가는 단지 그런 일들을 감추고 있거나 먼 훗날로 노출을 미루고 있을 뿐입니다. 친구들과 연인들은 서로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마음을 열어 이야기하고 그들 간의 서로 다른 점들을 해결해나갑니다.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에서도 그래야만 합니다. 우리는 기도 중에 하나님께 경건한 마음으로 공손하게 다른 의견을 말하고, 질문하고, 심지어는 논쟁을 할 수 있을 만큼 자유롭습니다.

랍비인 조셉 텔루스킨은 유대인들의 전통대로 하나

님과 솔직하게 대면할 필요성에 대해 썼습니다. 그의 저서 「유대인의 교육」에서 그는 "인간이 하나님과 논쟁을 한 첫 사례가 히브리 성경의 특성이 되었고 나아가서는 이러한 특성이 유대교에서 일반화되었다."라고 썼습니다. 아브라함 이후 수백 년이 지나는 동안, 시편기자는 분노와 고통 속에서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우시고..."라고 하나님께 외쳤습니다.(시 44:23-24; 하나님의 방법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했던 선지자와 의로운 사람의 다른 사례로는 하박국 1장 2절과 욥기 전체를 각각 보십시오.) 전능하신 분과 기꺼이 대면하는 것은 하나님도 사람처럼 책임을 가지고 있고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할 때 비판을 받아야 한다는 믿음에서 유래했습니다. 이 전통을 이어받고 지키는 유대인 엘리 위즐은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유대인은 하나님을 사랑하기도 하고 싸우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서 이런 태도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악의 도시 소돔을 멸망시키려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50명의 의인을 찾을 수 있으면 그 도시를 살려 달라고 주님께 여쭈었습니다. 하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단계 한 단계 숫자를 줄여서 10명이 될 때까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간청했습니다. 그러나 그 10명도 찾을 수 없었고 소돔은 멸망했습니다(창 18:23-33).

모세 역시 하나님께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노예 신분으로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인도해내기 위해, 그리고 광야에서 그들을 먹이기 위해 기적에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시내산 정상에서 하나님의 손에서 율법을 받고 있을 동안에 그가 인도한 이스라엘 동족들은 애굽에서 자기들을 구해내신 그 분을 포기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십계명의 첫 계명을 모독하여 그들은 황금우상을 만들어 이방의 다산의 신을 숭배하며 성적인 방종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런즉 나대로 하게 하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라고 말씀하셨습니다(출 32:10). 하나님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여 모세로부터 큰 나라를 만들겠다는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모세는 포기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찌하여 애굽 사람으로 이르기를 여호와가 화를 내려 그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고 인도하여 내

었다 하게 하려 하시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12절)라면서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구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하나님은 진노를 거두셨고 이스라엘은 용서 받았습니다(14절).

아브라함과 모세는 우리에게 좋은 본보기가 됩니다. 우리도 역시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여전히 두려워하면서 또 하나님을 경외할 것을 명심하면서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분께서 왜 그렇게 오래 기다리시는지 물어볼 수 있습니다.
- 우리의 아이가 보호 받지 못한 데 대해 하나님께 분노와 실망을 토해낼 수 있습니다.
- 아직도 직장을 얻지 못한 좌절감을 하나님께 퍼부을 수 있습니다.
- 아직 우리에게 아이가 없다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종류의 불평은 하나님을 위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결코 하나님 안에서 도덕적인

취약점을 찾지 않는다는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솔직하라고 권면하십니다. 하나님께 솔직하면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밝아지는 것을 발견할 수 있고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조절할 수 있도록 도움을 달라고 하나님께 부탁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 솔직하기를 그렇게 주저할까요? 아마도 우리는 그 어떤 마찰도 회피하는 부류의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심지어 사랑하는 사람들이나 친구들에게조차 우리의 부정적인 느낌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서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들 중 많은 사람들이 사랑과 반목은 함께 할 수 없다는 사회적 관념을 받아들이면서 화평과 조화 속에서만 좋은 관계가 생긴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서로 맞닥뜨리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서로 배려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서로 맞닥뜨리는 용기를 얻고 거기에 따른 위험을 무릅쓰며 나서는 것이 모든 인간관계를 튼튼하고 깊게 만들어줍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벧엘에서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가끔씩 하나님과 씨름을 잘 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옵니다(창 32:24-32).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의 응답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과 완벽하고 완전하게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 오스왈드 챔버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에 대한 확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목표는 하나님과 하나(마음이 하나가 되고 생각이 일치하는 것)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 중에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바라는 것이 하나님이 바라는 것인지,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같은지,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의 소망인지 우리는 자신에게 솔직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됨"으로 우리가 어떻게 성장할까요?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해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결코 공유할 수 없는 것은 확실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것을 위해, 배우자나 아이들이나 친구들을 위해, 치유나 취업 또는 인도받기 위해서 기도할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을 가르쳤던 마음가짐으로 할 수 있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

다."(마 6:10)

예수님은 돌아가시기 몇 시간 전에도 같은 마음을 표현하셨습니다. 겟세마네에서 고통에 찬 기도를 마치면서 예수님은 그런 상황에서도 십자가를 피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아버지께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은 이 드세고 솔직한 씨름을 마치고 이렇게 하나님께 결정권을 드리며 아버지와의 영적 동질성을 계속 유지하셨습니다.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이다"라는 기도에 대해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이 의구심이 우리가 지금껏 기도하던 것을 몰래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기도가 올바른 것이며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라는 진정한 확신 없이 우리의 기도가 드려졌다는 것이 아닌가요? 우리의 작은 소망을 이루어달라면서도 하나님을 귀찮게 만들지 않으려 노력하는 과정에서 거짓으로 겸손하여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허락하지 않으면 "괜찮습니다. 이해합니다."라고 말하면 그만인가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크게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헬무트 틸리케는 이렇게 썼습니다. "이 말은 '당신

의 뜻이 이루어지이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 말의 뜻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내가 스스로 이해하는 것보다 더 잘 이해하신다'(롬 8:26)입니다. 내게 필요한 것이 배고픔인지 빵인지 제일 잘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무엇이 닥칠지라도 나는 여전히 '예, 사랑하는 하나님'이라고 말할 것입니다(마 15:27). 왜냐하면 그것이 무엇이든 모든 것은 내 간구와 내 이해를 넘어서는 당신의 뜻이 내게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이다"라고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동의한다는 선택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요 4:34)라고 하신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겟세마네에서 하신 기도를 되풀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장이나 양식이나 배우자나 자녀를 주시든 주시지 않든 그 분의 방법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슴속에 지닌 생각이나 감정에 대해 우선 솔직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

다는 확신을 발견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실망을 극복하고 기도에 대해 확신을 얻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의 영혼이 건실해야 합니다.

C Converse instead of talk
말하기보다 대화하라

우리가 기도에 대해 확신을 갖지 못하게 하는 가장 일반적인 걸림돌은 아무도 듣는 이가 없다는 느낌입니다. 신문의 스포츠 면을 읽고 있는 남편에게 말을 걸려고 애쓰는 아내와 같은 기분이거나 음악을 듣고 있는 십대 자녀들에게 이야기하려는 아버지 같은 기분입니다. 아무런 반응도 없고 가끔씩 그저 "응, 응" 하는 소리조차 들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기도를 그저 제사 정도로만 여기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 한 마디 한 마디를 열심히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기도는 원래 우리가 친밀하게 관계를 발전시키고 있는 살아계시며 사랑하시는 존재와의 영적인 교분을 위한 것입니다. 토저는 그의 저서 「하나님을 찾아서」에서 "우리는 성자 하나님이 사람이라는 것, 그래서 사람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거의 망각하고 있었습니다."라고 썼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지 않는

다고 느낄 때 우리는 기도에 대한 두 가지의 지극히 중요한 관점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확신

기도는 그저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계속적으로 말씀해온 것과 그분의 말씀(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것에 사려 깊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성경은 주님과 우리 사이의 지속적인 대화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을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가 어렵다."

하나님과의 대화를 이루는 하나의 방법은 성경을 펼치고 시편이나 서신서의 한 소절을 찾아 꼼꼼하게 읽어서 그 본문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생각, 사랑 그리고 그분의 가치를 발견해보십시오. 존경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에 영감을 주신 그 분의 마음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 분의 가슴속에 있는 관심과 희망을 알아내도록 도와주십사고 간청하십시오. 그런 다음

당신이 듣고 있는 것에 대해 가슴속에서 우러나는 대화로 반응을 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당신은 하나님께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안다는 확신을 갖기 시작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당신의 가슴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남편이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에 반응하여 기도할 때 그는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될 것이고 그것을 아내와의 관계에 적용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으며"라는 말씀이 그가 그동안 얼마나 아내에게 쌀쌀하게 대했는지 통감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그에게 절실히 필요했던 삶의 태도와 행동방식의 변화를 차례차례로 이끌어낼 것입니다.

프란시스 피넬론이 이렇게 썼습니다. "침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성령이 당신에게 감동을 주어 그런 덕목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우리의 마음으로 준비하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우리 안에 있는 외부를 향한 세속적인 애정과 인간의 사상에 대해 침묵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 음성이 귀로 들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

경의 진리가 부드럽고 사랑스럽고 그리고 힘 있게 당신의 삶의 일과 형편에 대하여 말하는 것을 들을 때 그것이 성령의 음성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내 손자 나단이 아주 심하게 아팠던 어느 날 밤 나는 그를 위해 깨어 기도했습니다. 주님 앞에서 조용하게 기도 자세로 있는 도중에 나는 내가 내 아내 셜리의 요구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왔던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의 태도가 하나님의 말씀과 마음으로부터 얼마나 많이 동떨어져 있는지를 알았습니다. 내가 오랜 세월 동안 무심했던 것에 대해, 아내의 인생에서 필요한 것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도움을 청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나는 아내를 향한 태도를 적절히 바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들었는지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조용히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인 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반응한다는 확신

하나님의 음성은 말뿐 아니라 행동을 하도록 인도합니다. 말은 단지 시작일 뿐입니다. 예를 들어 고린

도전서 15장을 읽으면 부활의 위대한 승리와 부활과 함께하는 희망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반응은 찬양 이상이 될 것입니다. 싸움에 진 영적 원수와 우리가 마주칠 때 우리에게 더 큰 확신을 줄 것이고, 불치병을 앓는 사람에게 해 줄 말을 줄 것입니다. 일상의 걱정거리를 대면할 때 우리에게 힘을 줄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죄스러운 태도나 습관을 버리도록 해줄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행동할 준비가 되어있어야만 합니다. 기도가 성경말씀 속으로, 하나님의 마음속으로 깊이 들어갈수록 행동은 점점 철저하게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무거운 짐을 나누어서 지라고 그들의 거실로 우리를 인도할 수도 있습니다. 과거로 되돌아가게 해서 우리가 받았거나 입혔던, 치유되지 못한, 상처를 어루만지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계획을 과감하게 바꿀 수도 있습니다. 생소한 곳으로 가서 우리가 그 일을 하거나 할 수 있다고 생각도 해본 적이 없는 일을 하며 일생을 마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고 그분은 조용하거나 생기가 없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의 삶속에 들

어와 우리가 그 분께 반응할 때 극적이고 예측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어떤 때는 우리를 지금 그 자리에 그냥 두시기도 하십니다. 그것도 괜찮습니다. 그 분은 하나님이시니까요!

"당신이 해야 하는 일인 줄 알면서 그 일을 덮기 위해 기도로 변명하지 마십시오." -오스왈드 챔버스

우리에게 필요한 것과 부탁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기도를 처음 시작한 쪽이 우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모든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노르웨이 사람 올레 할레스비가 그의 명저 「기도」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계 3:20)라는 말씀을 기도의 문을 여는 열쇠로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문을 두드릴까요? 우리가 경험하는 상황과 환경을 통하여 기도 중에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합니다. 이것을 생각해보니 어린 나단을 위한 내 기도들은 하나님의 두드림에 대한 반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내 손자에게 필요했던 육체적인 건강을 사용하여 내 인생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Defer to God's perspective
하나님의 생각에 맡겨라

당신에게도 이런 문제가 일어났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자동차 영업소에 전화를 걸어서 정비 담당 부서를 연결해달라고 합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겠습니까?"라고 아주 명랑한 목소리가 말 합니다. 몇 초 후 "배경 음악"이 시작되면서 주기적으로 당신의 전화에 답을 할 것이라고 녹음된 음성으로 확인해줍니다. 당신은 지난밤에 있었던 야구경기나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대한 공허한 대화가 당신을 어정쩡하게 만드는 것을 상상하며 기다리고 기다립니다.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르면 당신은 전화를 끊을 준비가 됩니다. 자동차를 타고 영업소로 가는 것이 오히려 시간이 덜 걸리니까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고 계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서 위대한 일을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장 깊고 가장 소중한 소망은 허락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거기 계신 것은 알고 있는데 다만 응답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구약의 한나는 하나님께 거절당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잘 알았습니다(삼상 1:1-18). 그녀는 엘가나라는 남자와 결혼했던 두 여자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한 사람의 부인 브닌나는 남편에게 자녀를 낳아주었지만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살았던 시대는 아이가 없는 것은 하나님이 노한 증거로 간주되던 때였습니다. 브닌나는 하나님의 집에 제사를 드리러 가는 연례 가족 행사 때마다 한나의 불임을 조롱하는 잔인한 기쁨을 누림으로써 상황을 더 나쁘게 만들었습니다.

한나는 아주 신실하고 헌신적인 여자였지만 그녀의 고통은 오래 계속되었습니다. 그녀는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가는 한 여행길에 그녀는 심하게 울었습니다. 그녀 옆에 있던 제사장은 그녀가 술에 취한 줄 알고 힐난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한나 이야기의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에, 그리고 가장 적합한 때에 하나님은 한나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녀는 사무엘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삼상 1:19-20). 사무엘은 정한 때에 제사장이 되었고 역사의 흐름을 바꾼 선지자가 되었습니

다.

하나님의 때가 되자 한나가 받은 영적인 거부감은 기쁨으로 바뀌었습니다. 극도의 기쁨으로 찬양하면서 한나는 그녀가 마음 깊은 곳에서 갈망했던 것이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녀를 인정하고 받아주시는 것이었음을 보여주었습니다(2:1-10). 때가 되니 한나의 쓰린 마음은 기쁨으로 변했습니다. 한나의 경험은 우리의 기도에 대해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응답했는지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가올 모든 세대들에게 보여줄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지혜와 때를 기다릴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한나의 경험이 성경의 나머지 부분과 결합될 때 우리는 우리의 감정에 맡기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에 맡겨야 하는 많은 이유들 중 몇몇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시야에 대한 확신

우리의 시야는 바늘구멍을 통해 보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전체 그림을 한 눈에 볼 수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우리가 간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혹은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에게 좋지 않

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그 분께 간구한 모든 것을 다 들어주시지 않은 것에 대해 몇 번이나 감사를 드렸는지요! 천국에 가서야 우리가 그림 전체를 보게 될 것을 알고 내 기도들을 조절했더라면 내가 얼마나 더 부유해졌을까요. 그러면 우리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가 됩니다(고전 13:12). 포사이스는 이렇게 썼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위대한 거절이 때로는 우리의 기도에 대한 가장 진실한 응답이라는 것을 감사함으로 알게 될 때 우리는 하늘나라로 갈 것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위대한 거절이 때로는 우리의 기도에 대한 가장 진실한 응답이라는 것을 감사함으로 알게 될 것입니다." -포사이스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확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홀로 된 엄마가 재정압박 해소를 위해 이천불이 필요하다는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녀가 표현한 대로는 그 기도를 거절하셨습니다. 그녀

에게 돈을 주는 대신 하나님께서는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자리를 주셨습니다. 그 다음으로 그녀에게 돈 관리하는 법을 가르칠 친구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녀는 나중에 과거를 돌아볼 여유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서 그 분의 지혜가 반영된 방법으로 그녀의 기도를 들어주셨음을 알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좋은 것은 그녀가 점점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대한 확신

우리가 원했던 때를 훌쩍 지나 집이 팔리거나 혹은 자녀가 출산 예정일보다 2주 먼저 태어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의 형편을 조화롭게 잘 주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가 가장 적절한 때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확신

우리들 사이에도 배우자가 좀 더 존경심을 갖고 대해주기를 오랫동안 기도해오고 있는 부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공개 석상에서 배우자를

무시하는 행동을 그만두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까지 그 기도는 응답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용서하기를 거부하거나, 강박관념에 사로잡혔거나, 마음속에 분노가 끌어올라 성결함이 더럽혀졌기 때문에 기도 응답이 안 올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욕망을 탐닉하여 "잘못 구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약 4:3).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기 전에 점검하고, 고백하고, 회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는 기다리는 것도 기도의 일부로 이해했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망치 말아야 될 것"(눅 18:1)이라는 말씀에 대해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인내하는 기도를 가르쳤습니다.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섰는데 하나님이 기도응답을 미루더라도 하나님을 비판하는 잘못을 저지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불친절한 친구처럼 생각하거나 애정이 없는 아버지나 불공정한 재판관으로 생각해도 안 됩니다. 그냥 기다리십시오. 당신의 기도는 확실히 응답을 받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늘에 계신 당신의 아버지가 어느 날 모든 것을 설명하실 것입니다. 할 수 없기 때문이 아니

라 당신의 인격을 성장하게 하려고 아직 기다리고 계십니다. '성격은 상관하지 마시고 제 간구를 허락하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당신이 말하면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은 네 생각이나 지식보다 훨씬 앞서 나가고 있으니 나를 믿어라.'"

시편기자 아삽은 드넓은 하나님의 시야를 깨달았을 때 그런 실망을 극복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시편 73편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음이로다. 저희는 죽는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건강하며 타인과 같은 고난이 없고 타인과 같은 재앙도 없나니.... 내가 내 마음을 정히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앙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책을 보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이렇게 말하리라 하였더면 주의 아들들의 시대를 대하여 궤휼을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내게 심히 곤란하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저희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저희를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저희가 어찌 그리 졸지에 황폐되었는가 놀람으로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 저희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심장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하니 주의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 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시 73:15, 13-26)

Enjoy God while you wait
응답을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과 즐겁게 교제하라

시편기자 아삽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에 맡기는 것보다 더 낫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기도에 확신을 갖게 되는 또 다른 방법은 하나님이 당신의 필요를 충족시켜 주시기를 기다리는 동안 실제로 그 분과 즐겁게 교제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아는 특권과 비교를 시도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어떤 다른 것들도 하나님만큼 중요하지 않습니다.

고난에 짓눌리고 실망과 슬픔으로 부서지는 그런 시기가 우리에게도 틀림없이 있습니다. 한나처럼 소망이 좌절되어 어찌할 줄 모르는 그런 시기가 우리에게도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일들로 인해 우리가 기쁨으로 웃을 수 있는 많은 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에 대해 알고 있는 것에 대한 확신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을 배우고 있을 때 이미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알고 있는 것들에서 기쁨을 발견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시편기자의 초청장을 받아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문으로 들어가고, 찬양함으로 그 분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분의 이름을 송축할 수 있습니다(시 100:4).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 너무나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당신의 상사나 부모가 하나님이 하신 것의 10%만 해도 당신은 감사의 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도 그렇게 하십시오.

>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영히 감사하리이다 (시 30:12).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렸습니다(눅 10:21). 바울의 기도는 감사의 표현으로 가득합니다. (엡 5:20) 우리도 역시 주님께 기쁨이 넘치는 감사를 드려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성경은 주님을 찬양하는 표현들로 넘칩니다.

>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시 113:1-3).

주님을 찬양하는 다른 말씀으로는 시편 146편 1-2절, 히브리서 13장 15절, 그리고 요한계시록 4장 11절이 있습니다. 기도 중에 당신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오. 찬양으로 당신의 경배와 숭배를 표현하십시오. "그는 네 찬송"(신 10:21)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에 대한 확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또 다른 방법은 기도에 대하여 하나님이 주신 약속 안에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기도에 대한 유명한 소절에서 세 개의 약속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 4:6-7).

하나님의 평강에 대한 약속

걱정을 해결하는 방법은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하나님의 어깨에 우리의 짐을 옮겨놓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공포의 어둠속에서 그들의 짐을 주님께 가져갔을 때 주님은 그들에게 평강을 주시고 잠들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을 간증할 것입니다(시 4:8). 우리가 걱정과 짐과 근심을 주님께 가져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약속

우리의 마음과 감정은 우리가 기도할 때 보호 받을 것입니다. 우리의 산성이신 하나님이 원수가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를 지켜주십니다(시 31:3).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 보호막 안에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

바울은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빌 4:9). 우리가 폭풍의 골짜기를 지날 때나 혹은 혼자라는 것을 너무나 절실하게 느낄 때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상기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본 기도

성경 저자들은 우리와 같은 소망을 느꼈고 같은 절망을 만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도 역시 그들이 당면했던 상황 때문에 때때로 당황했습니다. 막다른 골목에 이르러 "벼랑 끝을 걷는" 것 같이 느꼈던 그들은 침묵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 속에서 활동했던 사람들은 기쁨을 회복할 때까지 충분히 오래 살았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두려움, 절망과 싸우는 과정에서 성경 저자들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과 기도에 투영해보면 새로운 희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시편 42편이 좋은 본보기입니다. 목마르고 풀이 죽은 영혼인

시편기자는 그가 잊고 있었던 진리를 재발견할 때까지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의 마음속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했습니다.

지금부터 성경말씀을 한 절 인용하고 다음으로 그 말씀을 기반으로 당신이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보여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뵈올꼬" (시 42:1-2)

주님, 이 말씀이 나의 공허함을 표현하네요. 저는 이 세상을 달리느라고 너무 메마르고 피곤하고 약합니다. 제 힘은 다 소진되었습니다. 얼마나 더 계속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당신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언젠가는 제가 당신 앞에 서게 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당신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주님, 제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요?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3절)

아버지, 당신은 어디 계십니까? 왜 저를 도와주시지 않으시는지요? 지금까지 저는 마음을 활짝 열고 당신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얼마나 신실하며 의지할 수 있는 분인지에 대해 제 이야기를 계속 들었던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이제는 제 마음이 불편합니다.

"저희를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4절).

주님, 상황이 너무나 달라졌습니다. 저는 당신의 백성들 앞에서 당신을 즐거워하였습니다. 우리는 함께 웃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너무나 외롭습니다. 기뻐했던 지난날은 너무나 멀리 있는 것 같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5절)

그렇습니다, 아버지, 저도 역시 더 잘 압니다. 제가 스스로 불평하는 것을 들을 때도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당신은 여전히 믿을 수 있는 분임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당신을 계속 믿고 의지하는 것이 옳다는 것을 정말로 알고 있습니다. 시편기자처럼 당신의 지혜로 적절한 때에 저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다시 웃게 될 것을 압니다. 당신을 찬양할 그 날이 올 것을 저도 압니다. 주님, 그 날을 얼마나 더 오래 기다려야 합니까?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 인자함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8절)

당신의 친절을 다시 경험하게 해주실 그 날이 오고 있음을 저는 정말 믿습니다. 저는 당신이 다시 한 번 그 어두운 밤에 찬송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인하여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9절)

아버지, 당신이 저를 도와주시리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저의 두려움은 파도처럼 계속 되돌아옵니다. 제가 당신을 믿고 있고 당신이 저의 반석이요 저의 피난처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전히 잊혀지고, 혼자 남겨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왜 당신은 당신의 자녀인 제가 당신을 찬양하지 않고 슬픈 시간을 보내게 하십니까?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11절)

그렇습니다. 주님, 저는 여전히 당신을 찬양합니다. 당신은 저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당신의 선함을 인하여 당신을 찬양합니다. 당신을 의심하였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는 당신을 기다리겠습니다. 제게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다리겠습니다!

특별한 상황을 위해 기도할 때 도움이 되는 성경 구절들

- 위험에 처했을 때: 시편 91
- 좌절할 때, 우울할 때: 시편 34, 139
- 걱정할 때: 빌립보서 4
- 위기에 처했을 때: 시편 121
- 용기를 잃었을 때: 시편 23, 42; 이사야 40
- 유혹을 받을 때: 시편 1; 고린도전서 10
- 외로울 때: 시편 27
- 용기가 필요할 때: 여호수아 1
- 용서를 구할 때: 시편 32, 51
- 의심할 때: 히브리서 11
- 확신이 필요할 때: 로마서 8; 요한 1서 5
- 감사할 때: 시편 136
- 기쁠 때: 시편 100

지금부터 당신이 해야 할 기도

당신이 지금부터 하는 기도는 당신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책의 처음으로 돌아가십시오. 당신은 빈칸을 어떻게 채우셨습니까?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실망에 대한 설명 가운데 당신에게 영향을 준 것이 있습니까?

자, 이제 행동에 옮길 때입니다. 하나님께 당신이 장애물을 밀고 나아갈 수 있는 결정을 하도록, 그런 방해물을 극복하도록, 그리고 당신을 도와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런 후에 당신이 하고 싶은 기도를 하십시오. 만약 당신이 용기를 잃는 일을 당했더라도 그것 때문에 기도를 중단하면 안 됩니다. 청교도들에게는 "당신이 기도할 수 있을 때까지 기도하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계속 기도하십시오. 당신은 곧 새로워진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가장 기초단계에서 시작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소책자를 읽고 나서도 당신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음을 확신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압니다(롬 3:23). 그러나 당신은 다음에 대해서도 알 필요가 있습니다.

- 당신은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엡 2:8-9).
-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우리가 결코 살 수 없는 완전한 삶을 살았습니다(벧전 2:22).
-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 값을 치르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고전 15:3-4).
-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께서 그의 희생을 받았다는 증거입니다(계 1:4-6).
-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을 우리의 구주로 받아들입니다(요 3:16).

당연히 치러야할 당신의 죄 값으로부터 구원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구원해주실 것을 믿으십시오. 당신은 이 청원이 당신이 여태까지 한 기도 중 가장 중요한 기도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구원의 기도가 당신이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다른 기도들의 확고한 근거입니다.

신앙성장 시리즈 – 성도들의 영적 성장을 위한 주제별 소책자

❶ 절망에서 희망으로(절판)
❷ 교회는 누구에게 필요한가?
❸ 오 신실하신 하나님(절판)
❹ 복 있는 사람
❺ 균형 있는 가정생활
❻ 왜 살아야 하나?(절판)
❼ 행복한 결혼생활
❽ 남자다운 남자(절판)
❾ 여자다운 여자
❿ 걱정 없이 살고 싶다
⓫ 다시 찾은 사랑
⓬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⓭ 하나님과 친해지고 싶다
⓮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원하시는가?
⓯ 어떻게 하면 마음이 평안한 부모가 될 수 있을까요?(절판)
⓰ 결혼의 약속(절판)
⓱ 어떻게 하면 자신에 대해 긍지를 가질 수 있을까요?(절판)
⓲ 균형있는 구원의 신앙
⓳ 균형있는 기독론
⓴ 하나님을 친히 알 수 있다!
㉑ 어떻게 성령에 충만할 수 있는가?
㉒ 교회 지도자의 자격
㉓ 갈등 해결의 방법
㉔ 깨어진 관계를 어떻게 해결하나?
㉕ 종교냐 그리스도냐 무엇이 다른가?(절판)
㉖ 돈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
㉗ 일에서 만족을 찾는 방법
㉘ 하나님은 내가 건강하기를 원할까요?
㉙ 인생의 마지막을 아름답게 맞이하자
㉚ 금보다 귀한 것
㉛ 좋은 교회를 알아보는 방법
㉜ 확신을 가지고 하는 기도

이 책이 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기를 원하시는 분께서는 뒷 표지의 헌금 안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양식」「신앙 성장 시리즈」 구독청원서 및 선교헌금안내

청원 및 헌금자		청원자 번호		전 화	
주 소					

받는사람					
성 명		직 분		접수자	
주 소				전 화	
				H · P	
우편번호		부 수	월 부	구독기간: 년 월~ 년 월	
구 분	❶신규 ❷주소변경 ❸부수변경 ❹재신청 ❺취소			현금입금은행 : ( )은행	

시리즈 번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신청부수																																

「오늘의 양식」과 「신앙 성장 시리즈」는 성도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 제작되는 책자입니다. 이 책이 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기 위하여 오늘의 양식 제작비 권당 500원, 신앙 성장 시리즈 권당 600원을 헌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